

## 1940年代 前半期 晉察冀邊區 住民의 生活上의 諸變化相

— 日帝의 治安強化運動이 招來한 各種 結果와 關聯하여

尹 輝 鐸

### 序 論

1. 農耕 및 各種 經濟實態
2. 各種 負擔實態
3. 衣食住實態
4. 政治·社會的 生活實態

### 結 論

### 序 論

중일전쟁을 통해 단기간 내에 중국 대륙을 점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했던 일본은, 1938년 10월 廣州와 武漢을 점령한 직후, 종래의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正面對決 방식을 持久戰 방식으로 전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國力, 특히 軍備를 확충해서 소련 및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고 장래의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日滿華 3국 간의 동맹 관계를 형성한다는 새로운 전략 방침에 기인한 것이었다.<sup>1)</sup> 그런데 실제로 화중 및 화북의 일본군 점령 지역에서는 徐州 및 漢口作戰을 위해 일본군 兵團이 외부로 동원되었기

1) 堀場一雄 著, 『日本對華戰爭指導史』(內部發行)(北京, 軍事科學出版社, 1988), 195쪽 참조.

때문에, 후방에는 일본군 병력이 부족해서 占과 線만을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게다가 戰線이 확대되면서 도처의 방비 태세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게다가 항일 세력, 특히 공산당군이 그러한 일본군 防備의 약점을 틈타 일본군 점령 지역 후방을 교란시키거나 국부적인 反攻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종래의 전면전 방식에서, 國力擴充을 통한 점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치안 확보라는 장기 지구전 형태로 그 전략을 바꾸었던 것이다.<sup>2)</sup>

당시 공산당군은 국민당군 主力이 일본군에 의해 서남쪽으로 퇴각당하면서 생긴 광대한 농촌의 행정적 공백을 이용해서 그 세력을 급속도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 변화의 극적인 표출은 1940년 후반에 八路軍이 일으킨 百團大戰이었던 것이다. 이 전투를 계기로 팔로군의 역량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일본군, 특히 화북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北支那方面軍(이하에서는 方面軍이라 약칭)에서는, 1941년부터 1942년까지 5차에 걸쳐 군사·정치·경제·사상의 제 방면을 망라한 總力戰의 성격을 띤 治安強化運動(이하에서는 治強이라 약칭)을 전개했다.

치강은 한마디로 방면군이 팔로군의 인적·물적 토대인 유격 근거지를 焦土化하는 동시에, 팔로군의 母體 역할을 하고 있던 화북의 민중, 특히 농민들을 팔로군측으로부터 분리시켜 그 보급로를 차단시킴으로 팔로군을 소멸시키려는 治安戰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치강은 일본의 화북 점령 정책의 典型으로서, 그것이 화북의 정세 및 화북의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이와 아울러 치강에 대응한 팔로군측의 각종 전술은 공산당군의 항일 전술의 본보기로서 이후에 전개된 국공내전의 결과에도 커다란 작용을 했다. 특히 일본의 화북 점령 정책의 總決算이라고 할 수

2) 堀場一雄 著, 같은 책 『日本對華戰爭指導史』, 225쪽.

있는 치강이 화북 민중들의 생활상에 미친 영향은, 화북 민중들의 항일 활동이나 공산 혁명 활동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因子로 작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1940년대에 들어서 화북 지역에서의 중일전쟁의 양상이 기본적으로는 농민 및 각종 雜色 武裝勢力의 획득 혹은 유격 근거지의 보호·확대와 파괴·축소를 둘러싸고 전개된 공산당군과 일제 세력(괴뢰 정부 포함) 사이의 力學的 產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일제 세력과 공산당 세력 사이에 놓여 있던 화북 농민들의 생활상의 변화 및 그에 따른 그들의 동향은, 상술한 양대 세력의 역학 관계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치강에서 비롯된 화북 농민들의 생활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그들의 행동 양상은 이후에 전개된 국공내전의 양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영향에 대한 분석은 항일 투쟁 및 공산 혁명에서의 화북 농민들의 역할이나 존재 위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화북 점령 정책과 공산 혁명의 내적 관련성을 해명해 주는 데에 필요한 하나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本稿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을 晉察冀邊區<sup>3)</sup>, 특히 冀東地區를 포함한 冀熱遼地區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기열료지구는 동북 지방에서 화북 지방으로 통하는 通

3) 晉察冀邊區는 일반적으로 공산당측 행정 구역이기 때문에 공산 유격 근거지만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만 치안강화운동 이후 진찰기변구에서는 공산당측과 일제측이 뚜렷한 戰線을 형성한 채 대결을 벌였던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일제측이 공산 유격 근거지로 쳐들어오면 공산당측은 이들과의 決戰을 피하고 일제측 점령 지구 후방으로 들어가 새롭게 유격 근거지를 형성했고, 일제측이 이곳으로 다시 쳐들어오면 다시 다른 점령 지구로 들어가 유격 근거지를 형성하거나 이전의 유격 근거지를 회복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공산 유격 근거지와 점령 지구의 경계가 확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각각의 영역도 시기에 따라 혹은 공산당측과 일제측의 양대 세력 여하에 따라 그 크기가 수시로 변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진찰기변구의 지역적 범주에는 일본군 점령 지구(즉 治安地區), 공산 유격구(準治安區), 공산 근거지(未治安地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路로서 이 양지역을 이어주는 咽喉와 같은 要衝地였기 때문에, 이 지구의 치안 확보는 「滿洲國」의 치안과도 직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는 각종 농산물과 전략 물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일제측은 화북의 다른 지방보다도 이 지구에 더 많은 注意를 기울였으며, 그 결과 이 지구에 대한 일제의 支配強度는 다른 지구보다도 훨씬 강했다. 그에 따라 기열료 지구에서의 항일 투쟁 양상은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치열했다. 그 결과 기열료지구는 중일전쟁 기간 동안 일제 세력으로부터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sup>4)</sup> 따라서 일제의 흑독한 점령 정책이 화북 민중들에게 미친 영향을 좀더 확연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기열료지구가 적합한 연구 대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紙面關係上 일제의 점령 정책, 특히 치강이 기열료지구 주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만 다루고, 그에 따른 이 지구 주민들의 행동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 1. 農耕 및 各種 經濟實態

한편 일제의 治安強化運動, 특히 지역의 劃分과 공산 유격 근거지에 대한 封鎖·分割·蠶食 工作, 保甲制度의 실시 및 自衛團의

4) 「中共中央北方分局對於冀東工作的指示(節選)」(1943. 3. 25), 冀熱遼人民抗日鬪爭史研究會編輯室 編, 『冀熱遼人民抗日鬪爭文獻·回憶錄』(이하에서는 『文獻·回憶錄』이라 略稱) 제2집(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7), 67쪽; 『晉察冀抗日根據地』史料叢書編審委員會 編, 『晉察冀抗日根據地』 제1책(文獻選編 下)(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1), 823쪽; 王永保, 「論冀東抗日遊擊戰爭的特殊性」, 中共河北·北京·天津·遼寧·內蒙古·唐山市市區黨史(委)研究室, 豐潤縣委 編, 『冀熱遼抗日根據地研究論文集』(이하에서는 『冀熱遼論文集』이라 略稱)(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5), 187-188쪽 참조.

조직을 핵심으로 한 自治自衛工作, 그리고 無住地帶(혹은 無人地區)의 설치와 集團部落으로의 주민의 수용을 근간으로 한 集家工作 등은 晉察冀邊區, 특히 冀熱遼地區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켰다. 특히 집가공작은 주민들의 경제 생활 자체를 파괴하다시피했다.

당시 집단부락에 강제 수용된 주민들은 생활할 방도가 없었다. 왜냐하면 집단부락 주위에 農耕이 허가된 토지는 매우 적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無住地帶, 封鎖壕(遮斷壕), 遮斷壁(封鎖壁), 토치카, 철도, 경비 도로 등에 의해 占用되었기 때문에 농경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제측이 전투 지역에 있는 토지를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유격 근거지 청장년들이 매일 같이 일제측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뛰어 다녔기 때문에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져 농작물은 황폐화되다시피 했다.<sup>5)</sup> 실례로 만리장성 양측에 있는 6개 현에서는 일본군의 무주지대 설치 공작에 의해 600만 畝의 토지가 황무지로 되었고,<sup>6)</sup> 冀東地區에서는 43만 5,000畝의 토지가 훼손되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천만 명 가량의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타향을 전전하게 되었다고 한다.<sup>7)</sup> 특히 興隆縣의 경우 11만 1천여 명이 199개의 집단부락으로 강제 수용되었으며, 全縣 면적의 41.7%에 해당하는 1,301 평방km가 주거 및 경작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 한다.<sup>8)</sup> 그리고 집단부락으로부터 10里 밖에 있는 농토에서의 농경은 대체로 금지되었기 때문에,<sup>9)</sup> 경지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밖에 없

- 5) 李楚離, 「堅持冀東遊擊戰爭爲創造大塊遊擊根據地而鬪爭(1940-1942)」, (1943. 2), 冀熱遼人民抗日鬪爭史研究會編輯室, 「冀熱遼人民抗日鬪爭文獻·回憶錄」, (이하에서는 「文獻·回憶錄」이라 약칭) 제3집(天津, 天津人民出版社, 1987), 21쪽.
- 6) 左祿 主編, 中國抗日戰爭史料叢書 「戰血的武士刀」, (日軍屠殺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94), 348쪽.
- 7) 「晉察冀日報」, 1943년 1월 5일자.
- 8) 中共唐山市委黨史研究室 編, 「冀東革命史」,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3), 305쪽.

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일제측의 집가공작이 주민들의 실정을 무시한 채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자연촌이 하나의 집단부락으로 통합·흡수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농경지가 집단부락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다. 즉 당시 대부분의 공산 유격 근거지가 자리 잡고 있던 산간 지구에는 산이 높고 땅은 넓은데 사람은 적어서 自然村 사이의 거리가 몇십 리나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촌과 촌 사이에도 여러 개의 큰 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sup>10)</sup> 이러한 상황에서 설령 경작이 허가되었다고 해도 일제측이 집단부락의 출입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먼 곳의 농경지까지 가서 일을 하고 제시간에 집단부락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상당수 농민들은 자신들의 경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상당량의 토지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sup>11)</sup> 이것 역시 농민들의 경지 부족과 식량 공황을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농경지가 상실되었거나 줄어들어 생활해 나갈 방도가 없게 된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집단부락이 자리잡고 있던 해당 지역의 地主들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빌려 소작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집단부락 주위에 농경이 허가된 토지는 매우 적었고 소작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늘어났기 때문에 소작료는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도 소작지를 얻는 것조차

9) 같은 사료집 『濊血的武士刀』(日軍屠殺錄), 350쪽.

10) 陳平,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3집, 223쪽. 실제로 興隆縣의 경우 2천여 개의 自然村이 199개의 집단부락으로 흡수·통합되었는데, 이것은 약 10개 정도의 자연촌이 한 개의 집단부락으로 흡수·통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결과 촌과 촌 사이에도 여러 개의 큰 산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위와 같다).

11) 같은 책 『冀東革命史』, 339쪽.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sup>12)</sup> 그로 인해 농민들은 대부분 삶의 의욕을 상실했다.<sup>13)</sup> 게다가 組合을 통한 配給制度 등의 약탈이나 통제가 가해져 집단부락민들의 생활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sup>14)</sup>

일반적으로 농민들의 副業 收入 역시 일제의 각종 경제 정책 및 경제 봉쇄 조치로 줄어들었다. 그러한 예로서 일제측이 지배하고 있던 定北의 3개 촌에 대한 경제 개황을 살펴보면, 하북의 중요한 면화 생산지였던 이 지역에서는 토지의 50-60%에 면화를 심었고 전 농가의 30% 가량이 가내 수공업 방식의 방직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방직업은 도시의 기계제 방직업으로 점차 대체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자가 노동력을 이용해서 布匹을 짠 뒤 이것을 중간 소매상에게 팔거나 자신들이 직접 시장으로 가지고 가서 화폐나 생활 필수품으로 교환함으로써 방직업을 생활비나 각종 세금을 충당하는 주요한 원천으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강제로 일정한 수량의 면화를 심게 한 뒤, 그것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박탈하고 헐값으로 매입해 버렸다. 그 결과 자연히 방직업 경영에 따른 부업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sup>15)</sup>

게다가 일본군의 끊임없는 掃蕩作戰으로 가옥이 불태워지고 농경지가 훼손되고 각종 물자가 약탈당했기 때문에, 공산 유격 근거지의 物價는 폭등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42년 5월부터 개시된 일본군의 소탕 작전으로 冀中地區의 물가는, 소

12)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3쪽.

13) 葉劍拓, 「日寇在華北最近的動態」(『解放日報』, 1942년 2월 13일자) 및 軍事科學院外國軍事研究所 編, 中國抗日戰爭史料叢書 『凶殘的獸蹄』(日軍暴行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94), 85쪽.

14) 姜宇, 「一九四三年下半年冀熱邊情況報告」(1943. 12. 30),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2집, 85쪽.

15) 丁原, 「定北敵佔區三個村莊的經濟概況」(『晉察冀日報』, 民國 30년 8월 2일자).

탕 전에 닭 한 마리가 1원 가량, 돼지 고기 한 근이 1원 가량이었는데, 소탕 작전이 끝난 뒤에는 전자가 8, 9원으로, 후자가 3원 가량으로 폭등했다. 그 결과 기증 지구 주민들의 생존은 중대한 위협에 봉착하고 있었다.<sup>16)</sup>

또한 다음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방면군은 陣地나 警備道路 構築 혹은 豫備彈藥 운반에 소요되는 노동력(소위 苦力)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중국인 청장년들을 체포·연행해가거나 役畜과 大車등을 징발·약탈했다.<sup>17)</sup>

부락이란 부락을 모조리 뒤져서 18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山羊·소·돼지 등을 전부 끌어 모은 뒤, 부락민들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키도록 했다. 그곳으로 軍의 트럭이 오자 가축은 가축끼리 사람은 사람끼리 따로 모아 끌고 갔다.……(이들을) 靑島로 데려가 큰 체육관에 수용했으며,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제1공원의 競馬場에 수용했다.<sup>18)</sup>

일본군은 대량으로 사람들을 살해하는 동시에, 사람

16) 程子華, 「敵對冀中掃蕩與冀中戰局」(1942. 8. 4.), 『晉察冀日報』, 1942년 8월 4일자.  
 17)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추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42년 膠濟線 益都에 집결해 있던 방면군 소속 어느 旅團의 예하 大隊은 우선 崑崙關과 豫備彈藥을 짊어지게 하기 위해 중국인과 役畜을 약탈했다. 43大隊에서만도 崑崙關과 苦力으로서 각각 20명 가량과 80여 명을 체포했으며, 50여 두의 당나귀와 노새를 약탈했다. 이 과정에서 신흠 夫婦의 집에 들어가 남편을 끌어내자,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매달리는 妻를 발로 찬 후 칼로 배를 찢어 죽이고, 남편은 예비 탄약함에 숨어있다가 하면서 苦力으로 혹사시켰다.…… 한편 莒縣 東南方으로부터 쳐들어온 長島旅團本部는 依漢莊 부근의 八路軍 근거지를 습격했고, 뒤이어 江蘇省 托汪에 상륙한 混成隊5여단의 일부와 합류해서 十字路 부근에서 대대적인 약탈을 했다. 54旅團은 120명의 팔로군과 70명의 인민을 살해하고 250명의 농민을 체포해서 濟南捕虜收容所로 보냈다. 또한 대량의 藥品, 대량의 家畜, 즉 소·말·당나귀 등 250 두를 약탈했다”(田中 宏·內海愛子·石飛 仁 解説, 『資料 中國人強制連行』(東京, 明石書店, 1986), 544쪽).

18) 같은 자료 『資料 中國人強制連行』, 545쪽.

들의 생존 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약탈하거나 없애버렸다. 일본군은 각지에서 1백여 량의 大車를 징발해갔고, 河區의 각 촌에 있는 식량·대추·땅콩·돼지·양·닭·오리·家具 등을 모조리 빼앗아갔으며,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집과 함

께 모조리 불태웠다. 심지어 닭장이나 돼지우리마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sup>19)</sup>

그뿐만 아니라 1942년부터는 1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봉쇄호를 파게하거나 들을 주워 오도록 했으며<sup>20)</sup>, 유격 근거지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賃金으로 노동자들을 유인·흡수함으로써 유격 근거지에서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악화시켰다.<sup>21)</sup> 그밖에 일제 세력의 경제 봉쇄로 인한 식량 결핍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유격 근거지 농민들은 마차를 동원해서 식량을 운반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역축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마차들이 파괴되기도 했다.<sup>22)</sup>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농사지을 수 있는 청장년들과 농경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역축과 農器具들이 부족해짐으로써 농업 생산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례로 1941년 말까지 증공측 유격 근거지의 주민들이 일제의 치강으로 인해 입은 피해 상황을 보면, 인구 사망률은 연간 11.5%로서 출

- 
- 19) 徐有禮, 「沙區浩劫---冀魯豫邊“四一二”掃蕩紀實」, 馮碩基·楊玉芝·邢安臣 主編, 『日本帝國主義在華暴行』, (瀋陽, 遼寧大學出版社, 1989), 517쪽.
- 20) 李楚離, 같은 회고록 「堅持冀東遊擊戰爭爲創造大塊遊擊根據地而鬪爭 (1940-1942)」, 21쪽.
- 21) 「中央對晉東南抗日根據地職工運動的指示」, 『解放日報』, 1942년 5월 1일, 2쪽(여기에서는 「資料20 中共中央 晉東南抗日根據地の勞動運動についての指示」, 日本國際問題研究所中國部會 編, 『中國共產黨史資料集』, 11(東京, 勁草書房, 1975), 107쪽).
- 22) 실례로 晉察冀邊區 北岳區에서는 유격 근거지 밖으로부터의 식량 운반 자체가 하나의 전투였다. 유격 근거지 농민들이 일제 세력의 총탄이 비오듯 하는 속을 뚫고 식량을 大車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공출된 대차 4,940여 량 가운데 300여 량, 역축 200여 頭를 상실했다(傅尙文, 「晉察冀邊區北岳區的糧食戰」, 『歷史教學』, 1985년 제2기), 14쪽).

생물을 초과하고 있었고, 그 결과 노동력은 7.34%로 감소되었으며, 畜力の 경우에도 노새와 말은 1/2, 소와 당나귀는 1/3로 감소되었다. 이처럼 노동력과 축력의 감소 및 戰火로 인해 논에서의 평균 생산액은 1/3로 감소되었다. 게다가 1941년에는 일제의 토벌에 의해 밭의 수확과 가을 농사를 짓지 못한 마을이 매우 많았다.<sup>23)</sup>

결국 상술한 것처럼 無住地帶의 설치에 따른 농경지의 蠶食 및 荒廢化, 각종 封鎖壕(遮斷壕)·封鎖壁·警備道路 등의 설치에 따른 農耕地의 占用 및 그에 따른 농경지의 축소, 노동력 및 役畜의 徵發 및 激滅, 토벌이나 혼련 등에 따른 농작물의 放置, 중공측의 전투 준비에 따른 청장년의 동원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력은 격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은 일제측과 공산당측의 食糧供出(出荷)과 徵稅, 그리고 副業收入의 감소였다. 이러한 제 요인으로 인해 농민들, 특히 집단부락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빈농은 半雇農이나 雇農으로, 중농은 빈농으로, 지주는 부농으로 각 계층이 몰락하는 경향, 즉 下降分解現狀이 농후했다.<sup>24)</sup>

반면에 유격 근거지에서의 농업 경영 악화 현상과는 달리, 소상인과 투기적인 소매꾼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人力車 영업이 번창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상업적 이윤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sup>25)</sup>

23) 北支那方面軍參謀部, 「剿共指針」 제7호(1942.1)에 의한다. 여기에서는 日本 防衛廳 研修所戰史室 編, 「北支の治安戰」 2(이하에서는 「治安戰」 2'라고 略稱)(東京, 朝雲新聞社, 1968), 274쪽에서 재인용.

24) 姜宇, 같은 보고 「一九四三年下半年冀熱邊情況報告」(1943. 12. 30), 85쪽.

25) 李楚離, 같은 회고록 「堅持冀東遊擊戰爭爲創造大塊遊擊根據地而鬪爭」(1940-1942), 21-22쪽.

## 2. 各種 負擔實態

당시 농민들은 수확한 穀物을 組合에 납부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이것을 "穀物出荷"라고 불렀다. 棉花는 개인의 保有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出荷名目에는 '大豆出荷', '油類出荷', '報國出荷', '民主出荷', '部落出荷' 등이 있었다. 게다가 일본군은 각종 苛捐雜稅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門牌捐·戶籍捐·家畜捐·飛行機捐·結婚稅·照像捐(寫眞稅)·良民證捐·阿片稅·房稅·自動車稅·旗捐 등 헤아릴 수없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貯金·鋼鐵·毛皮·닭·계란·野菜·살구·밤·호두 등을 헌납하도록 강요했다.<sup>26)</sup> 이처럼 일제측에 대한 각종 부담은 매우 무거웠다.<sup>27)</sup>

일반적으로 집단부락민들에 대한 징세 항목 및 그 액수는 지역에 따라 달랐는데, 이해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어느 집단부락의 保·甲長이 말았던 징세 항목 및 그 액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正稅로는 ① 民生積穀, 每畝 2斗 4升, ② 土地稅, 中等地 每季每畝 5角, 下等地 3角, ③ 토지 부가세, 每季每畝 2角 5分, ④ 門戶費, 1角-1百元, ⑤ 協合費, 每戶 최소한 1인이 協合會에 참가해야 했는데, 1인당 회비는 2원, ⑥ 牧畜費, 당나귀 4원, 양 7角

26)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5쪽; 陳平, 「千里無人區」, 南開大學歷史系·唐山市檔案館 合編, 『冀東日偽政權』(北京, 檔案出版社, 1992), 356-357쪽 및 阿之, 「最近敵寇在華北各地的陰謀活動」, 『晉察冀日報』, 民國 30年(1941년) 6월 20일자.

27) 그러한 단적인 사례로 灤平縣 玻璃廟村에서는 원래 3천 두의 양이 있었는데, 집단부락이 건설된 지 2년만에 피뢰 軍警이 제멋대로 잡아먹어 남은 것은 11두에 불과했지만, 세금만 여전히 3천 두로 계산해서 징수되었다(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5쪽). 또한 山東省 費縣에서는 稅目이 45種에 이르렀으며, 晉察冀邊區의 戶數 200여 호의 조그만 마을에서는 1941년 6월부터 80일 사이에 24만 원이 收取되었다(邱華·雪輝, 「敵寇在華北的“治安強化運動”」, 『解放日報』, 1942년 1월 15일자). 그리고 熱河省 남부의 집단부락에서는 住宿捐 1호당 매년 80원, 軍需捐 1인당 每季 7원, 비행기 헌금 1인당 7원 및 5원 상당의 고철 덩어리 5개, 地畝捐 17원, 附加捐 등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1畝당 80여 근의 糧食에 해당하는 세금이었다(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日軍屠殺錄), 350쪽).

5分, 노새와 소는 그 값의 5%, ⑦ 출생비와 사망비 각 2각, ⑧ 屠畜費, 돼지 4원, 양 2원, ⑨ 재료비, 每畝 2角 등이 있었다. 다음에 雜稅로는 ① 送菜(菜蔬 상납), 每甲 3일에 한 번, 매번 50-100斤, ② 送柴(땔감 상납), 每甲 3일에 한 번, 매번 5백 근, ③ 送猪, 每甲每月 80근 이상 짜리 돼지 3-10마리, ④ 送鷄(닭 상납), 每甲 매월 5-20마리, ⑤ 送禮, 현병대장 등의 결혼식 비용 보조, 每甲 70원, ⑥ '棍團'(반공자위단) 단원의 훈련비, 每甲에서 10명을 차출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1사람당 매월 100여 원, ⑦ 노력 동원, 每甲 每月 10-30인 차출 등이 있었다.<sup>28)</sup>

한편 진찰기변구, 특히 기열리지구에서는 일제 세력과 팔로군 세력의 전투가 치열한 가운데 군사적으로 상대적인 劣勢에 있던 팔로군측이 1942년도 후반부터 兩面村政權 建立政策<sup>29)</sup>과 “敵進我進”戰術<sup>30)</sup>을 구사하고 나서부터 양면촌 정권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당시 이 지구에서는 일제 세력과 공산당 세력이 모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양쪽 세력에게 모두 세금을 바쳐야 했다. 따라서 양면촌 주민들의 각종 부담은 어느 일방에게만 세금을 지급해도 되는 다른 지구---縣城이나 일제측 주둔지 및 그 주변 지역 혹은 철도

28) 吳襄, 「人間地獄“人團”生活」, 『冀熱遼政報』 제5기.

29) 일제 세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팔로군측이 생존 및 세력 확대를 위해 일제의 점령 지구로 들어가 수많은 기존 村의 파괴 행정 기관원들과 항일 통일 전선을 구축한 뒤, 그 세력으로 하여금 항일 세력을 위해 복무하도록 각종 공작을 펼쳐 親日一邊倒 혹은 일제와 공산당 세력 모두에게 복무하는 兩面性을 띤 촌들을 점차 抗日一邊倒의 촌으로 개조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30) 이것은 일제측이 공산 근거지로 공격해 들어오면 팔로군은 일제측과의 決戰을 피하고 일제측의 점령지로 들어가 그 안에 새로운 유격 근거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려 일제측에게 蠶食된 지구를 다시 탈환하는 정책이다. 기열리지구의 팔로군은 1942년 여름부터 그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일제 세력이 근거지로 진공해오면 근거지를 벗어나 유동하면서 일제측 점령 지역에 새로운 유격 근거지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제측 주력이 근거지에서 철수하면 다시 본래의 근거지로 들어가 再建 공작을 펼쳤다(婁平, 「敵進我進”戰略在冀熱遼」, 같은 논문집 『冀熱遼論文集』, 212쪽).

주변 지역 등의 平原地區에 있는 親日一邊倒의 촌이나, 일제측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산간 지구의 抗日一邊倒의 촌 ---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했다. 즉 일제의 치강으로 종래의 많은 근거지가 유격구로 변질되면서 유격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표 1> 共產黨側과 日帝側에 대한 遊擊區民들의 負擔狀況  
(단위; 괴뢰 國民政府의 元)

	共產黨側에 대한 負擔(a)					日帝側에 대한 負擔(b)					差異(a-b)		
	①	②	③	④	합계	㉑	㉒	㉓	㉔	합계	實數	%	
遷 遼 興 聯 合 縣	興旺村 (1941)	781	380	-	912	2,073	-	2,166	2,964	646	7,643	-5,570	27.1
	大曹各寨村 (1941)	2,797	240	600	288	3,925					22,168	-18,243	17.7
	大安口村 (1942)	4,820	1,800	-	300	6,920	1,496	4,565	1,800	1,570	9,431	-2,511	73.4
	亢港村 (1943)	51,925	675	-	33,600	86,200					22,193	+64,007	388.4
遷 青 平 聯 合 縣	黃槐峪村 (1943)	1,284	285	-	1,887	3,456					2,735	+721	126.4

<출전> 筆者 不明, 『冀熱遼社會狀況考察』(1943. 8), 魏宏運 主編, 『晉察冀邊區財政經濟史料選編』(總論編)(南開大學出版社, 1984); 劉連喜調查資料, 『遼化縣實行合理負擔情況』, 中共遼化縣黨委黨史資料徵集辦公室 編, 『遼化黨史資料』 제2집

<비고> ①은 부담한 식량·신발·양말들을 돈으로 환산한 가격, ②는 慰勞費, ③은 접대비, ④는 村經費·辦公費, ㉑는 토지세, ㉒는 접대비, ㉓는 협잡·갈취비, ㉔는 괴뢰 鄉公所 경비를 말한다. 1941년 들어서 유격 근거지가 개척·확대되면서 동년 겨울 冀東地區는 다음과 같이 구획이 조정되었다. 承德縣·灤平縣·興隆縣의 세 변경 지역에서는 承灤興聯合縣辦事處가, 遷安縣 북부, 平泉縣 남부, 靑龍縣 지역에는 遷靑平聯合縣政府가, 새로 개척된 興隆 동부와 중부 지역은 遷遼興聯合縣이, 玉田縣 남부, 豐潤縣 서부, 寧河縣 북부 지구에는 豐玉寧聯合縣政府가, 豐玉遼聯合縣이 각각 건립되었다.<sup>31)</sup>

31) 같은 책 『冀東革命史』, 260쪽 참조.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 그 결과 근거지 시기 공산당 세력에게만 각종 세금을 부담하면 되었던 주민들은 그것이 유격구로 바뀌면서 일제측에게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반대로 일제의 점령지였다가 공산당 세력의 양면촌 정권 수립 정책 및 '적진아진' 전술로 인해 공산당 세력이 출현하게 되자, 이 지구의 주민들은 공산당 세력에게도 식량이나 세금 등을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형세 변화는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당시 유격구의 주민들이 일제측에게 부담하는 것은 稅目이 번잡한 苛捐雜稅가 대부분으로서, 일제 特務의 招待費 및 공작비, 괴뢰 鄉保公所의 辦公費 및 괴뢰 辦公員의 고용비, 車馬費, 治安軍·反共自衛團·정보원에 대한 각종 비용 등이었다. 이에 비해 항일 세력에게 부담하는 것은 주로 식량·신발·양말·위로금·초대비, 判事員 및 武裝班長의 手當, 일제측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원이나 각 촌에 침투해 있는 정탐원의 비용, 村간부들이 회의를 열 때의 식사비 등이었다. 따라서 유격구의 행정 기관에는 일제측과 공산당측 양쪽을 위한 帳簿가 각각 따로 있었다. 일제측은 인구와 토지의 多寡에 따라 평균적으로 부과했는데 비해, 공산당측은 농민의 資産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이나 괴뢰군이 식량과 자금 등을 요구할 때, 保長이 이들을 접대하는 동안 保의 會計가 계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분배한 뒤, 다시 판사원의 비준을 얻어 일제 세력의 거점으로 보냈다.<sup>32)</sup> 공산당측의 경우 財糧委員이 항일 지구 정부의 재정 담당자로부터 할당 액수를 수령해 와서 판사원과 함께 각 戶에 할당해야 할 액수를 계산했다. 이것이 끝나면 보초를 서고 있던 青年報國

32) 朱德新, 『二十世紀三四十年代河南冀東保甲制度研究』(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994), 157-158쪽.

隊員이 각 戶에 알려 밤에 농민들로 하여금 財糧委員處로 식량(주로 小米)을 보내도록 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을 선택해서 감감한 밤에 사람을 보내서 비밀리에 양식을 부대로 보냈다.<sup>33)</sup>

당시 유격구 주민들이 양측 세력에게 부담한 액수를 비교해보면, 일제측의 세금은 일본군 및 괴뢰군 주둔지와 가까운 곳이나 평원 지대의 촌에서는 무거웠고, 그 주둔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나 산간 지구의 촌에서는 가벼웠다. 이와는 반대로 공산당측의 세금은 산간 지구나 일제측 주둔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무거웠던 반면에 평원 지구나 일제측 주둔지와 가까운 곳에서는 가벼웠다. 특히 일제측 주둔지와 가까운 곳에 대해서는 세금을 分納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34)</sup> 이것은, 抗日性이 강한 산간 지구와 달리, 親日性이나 兩面性을 띤 일제측 주둔지 및 그 부근 지역 주민들의 이중적인 세금 부담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촌들을 점차 양면성 혹은 항일성의 촌으로 전파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격구민의 공산당측에 대한 부담액은 총수입 가운데 대체로 2.5-10.0%, 일제측에 대한 부담액은 2.8-10%를 차지하고 있었다.<sup>35)</sup>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주목되는 것은 치강 기간인 1941년부터 1942년까지는 일제측에 대한 각종 부담이 공산당측보다 몇 배 많았던 데에 비해, 1943년부터는 거꾸로 공산당측에 대한 부담이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다(<표 1> 참조).

이것은 물론 지역적 특성에 따른 결과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33) 당시 관사원을 맡았던 劉歡과 財糧委員을 맡았던 高春峰을 방문한 뒤의 기록에 의한 것이다(여기에서는 朱德新, 같은 책, 158쪽).

34) 朱德新, 같은 책, 158쪽.

35) 「冀熱邊社會狀況考察」(1943. 8), 晉察冀邊區財政經濟史編寫組·河北省檔案館·山西省檔案館 編, 『晉察冀邊區財政經濟史料選編』(總論編)(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4), 761쪽.

1943년을 전후로 해서 冀東地區의 공산당 세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공산 유격 근거지가 확대된 데 따른 재정 수요의 증대였다.<sup>36)</sup> 또 다른 원인은 일제의 치강에 맞서기 위해 그동안 생산에 종사 하던 청장년들이 공산당군에 참여하거나 일제측에게 끌려간 결과, 농경 종사자(즉 납세 대상자)는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측이 책정된 재정 예산을 충족시키기 위해 잔존해 있는 납세 대상자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웠기 때문이다.<sup>37)</sup> 또한 치강으로 각종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공산당측이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재정 예산을 늘린 결과 때문이기도 하다.<sup>38)</sup>

특히 유격구의 주민들은 팔로군과 일제측 모두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이 지구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은 더욱 컸다. 이와 관련해서 괴뢰 治安軍 第101集團軍 參謀長 南宮辰조차도 豐潤縣鄉鎮長會議에서 “풍운현 농민들의 최근 조세 부담이 무겁고 稅目이 번거로워 本縣 남부 지구의 농민들은 곡물의 죽정이

36) 李楚離, 「堅持冀東遊擊戰爭爲創造大塊遊擊根據地而鬭爭(1940-1942)」, (1943. 2),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3집, 25쪽.

37) 「中共中央北方分局關於冀東工作向北方局的報告」, (1941. 6. 19),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2집, 52-53쪽 참조.

38) 같은 문건 「中共中央北方分局關於冀東工作向北方局的報告」, (1941. 6. 19), 53쪽 및 李楚離, 같은 회고록 「堅持冀東遊擊戰爭爲創造大塊遊擊根據地而鬭爭(1940-1942)」, 23쪽. 이와 관련하여 상부의 공산당 기관에서도 재정 위기의 초래를 우려해서 긴급 재정의 편성을 지시하는 동시에, 정규적인 경제 제도의 확립, 유격대의 대우를 정규군보다 낮게 할 것, 공작원 급여의 획일화, 豫決算 및 會計 제도의 확립, 세금의 항목과 액수의 확정, 탄약·衛生 기구·약품의 통일적인 공급을 통한 예산 절감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위의 문건 「中共中央北方分局關於冀東工作向北方局的報告」, (1941. 6. 19), 53쪽 및 李楚離, 같은 회고록, 23쪽). 그밖에 節約運動과 反腐敗浪費鬭爭의 전개, 민중에 대한 빈번하고도 부계한적인 징발을 금지하고 일정한 세수 규칙 및 계획을 가지고 80%의 주민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원칙하에 인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인민들로 하여금 공산당측에 대한 부담이 일제측에 대한 부담보다 가볍다는 것을 인식시켜 인민들을 공산당측으로 끌어들이는 것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彭眞, 「在許,姚考察後對冀東,平北工作意見」, (1941. 6. 19),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2집, 56쪽. 여기에서 許는 許建國, 姚는 姚依臨을 가리킨다. 이 문건은 1941년 6월 19일 상기한 두 사람이 冀東에서의 공작 상황을 공산당 北方局에게 보고한 것에 대한 의견서이다).

나 거로 연명하고 있다.”<sup>39)</sup>고 하여 농민들의 조세 부담이 과중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한편 일제는 각종 군사 시설물 공사를 구축하거나 피뢰군에 충당하기 위해, 혹은 鑛山이나 軍事工場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청장년들을 徵兵했거나 徵用으로 끌고 갔다. 실례로 1937년에 32만 3,689명, 1938년에 50만 1,686명, 1939년에 95만 4,882명, 1940년에 약 120만 명으로서 이 4년 동안 총 298만 257명이 끌려갔으며,<sup>40)</sup> 1941년 한 해만 해도 화북에서 약 248만 명이 징용되었다고 한다.<sup>41)</sup>

또한 주민들에 대한 賦役動員과 관련된 사례로써 북지나방면군 제27사단 제2연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동 연대는 1942년 11월 16일까지 遮斷壕 319km, 柵舍 132개, 堡壘 3개, 城寨 18개, 關門 2개를 구축했는데, 여기에 소요된 總勞動日數는 52일, 작업 延人員은 195만 7천 명이였다.<sup>42)</sup> 이것은 1일 평균 3만 7천여 명씩이 동원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각종 군사 시설 구축에 동원된 민중들의 규모가 매우 컸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징발은 농민들의 농업 경영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쳤다.

게다가 「만주국」에서 실행한 大檢學制度를 冀東地區의 집단부락에 도입한 방면군에서는 검거 수단을 통해 수많은 청장년들을 끌어가 勞工으로 충당했다.<sup>43)</sup> 실례로 방면군에서는 1942년 10월

39) 「豊潤縣鄉鎮長會議記錄」(1943. 6. 5)(『豊潤縣政公報』 제5권 제11-12기 合刊(1943. 6)(여기에서는 朱德新, 같은 책, 132쪽에서 재인용).

40) 彭德懷, 「敵寇治安強化運動下的陰謀與我們的基本任務」(1941. 11. 1), 河北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河北省檔案館·石家莊高級陸軍學校黨史教研室·石家莊陸軍學校歷史教研室·鐵道兵工程學院政治理論教研室 合編, 『晉察冀抗日根據地史料編』, 下冊(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83), 135쪽.

41) 葉劍拓, 「日寇在華北最近的動態」(『解放日報』, 1942년 2월 13일자).

42) 「支那駐屯步兵第二聯隊史」, 같은 자료집 『治安戰』, 2, 232-233쪽 所收.

43) 당시 일본군은 그러한 행위를 ‘勞工사냥’이라고 불렀다(森山康平, 『證言記錄』, 三

하순부터 12월까지 화북 및 山東半島 전역에서 제3차 魯東作戰을 전개했는데, 당시에 三光作戰과 더불어 체포된 약 3만 명의 중국인을 중국 및 만주의 탄광이나 일본의 탄광 港灣 등으로 끌고 가서 탄광의 광부, 항만의 荷役人夫 등으로 활용했거나, 일본군의 陣地構築 공사장이나 일본군의 물자 운반 작업 등에 보내 강제 노동에 종사시켰다.<sup>44)</sup>

당시에 일본군의 기만적인 募集, 強制徵用, 檢擧 등의 수단을 통한 勞動力 確保政策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루어졌는지<sup>45)</sup>에 관해서는 당시 방면군 소속이었던 어느 일본 병사의 懺悔錄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中正 전후에 제3중대는 주둔지에서 陘絲口鎮 일대로 출발하여 새벽에 200여 戶가 있는 어느 마을에 도착했다. 중대장이 각 班에 검거 명령을 내렸다. 大木班은 3인(大木·小川·阿部) 1조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마을의 중앙에 도착한 후 그들은 어느 집 대문을 열고 방안에 들어가 보니 병든 노인이 다 부숴진 온돌방 위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 30세 가량의 부녀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이때 그 부녀자를 쏘아보고 있던 小川의 두 눈에는 淫亂한 미소가 흘러 나왔다. 그는 곧 노인과 부녀자만 있다는 구실로 나와

光作戰---南京虐殺から滿洲國崩壊まで(東京, 新人物往來社, 1975), 83쪽).

- 44) 위의 증언 『證言記錄 三光作戰---南京虐殺から滿洲國崩壊まで』, 83쪽, 87-88쪽. 중국인의 강제 연행과 관련해서 1942년 11월 27일 東條內閣에서는 「華人勞働者內地移入ニ關スル件」을 의결해서 체포한 중국인들을 「契約」이라는 위장된 방법으로 강제로 일본으로 연행해 갔다(같은 자료 『資料 中國人強制連行』, 544, 746쪽).
- 45) 이것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자. "1942년 일본군이 (河北省 遵化縣 新立村) 집단 부락의 농민들을 太后陵 부근의 廣場에 집결시킨 뒤, 소위 「大檢擧」를 실시했다. 이때 일본군은 소위 협의자로 5명을 끌어내어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곧이어 陳敏·段文龍을 「私通八路」란 罪로 묶은 뒤 불더미 속에 집어넣어 태워 죽였다. 일본군은 또한 檢擧 수단을 통해 수많은 부고한 靑壯年들을 外地로 끌고간 뒤, 이들을 勞工으로 삼았다. 新立村 집단부락의 射振邦·金連靑 등 31명은 이렇게 承德으로 끌려가서 노역에 시달리다가 1년도 못되어 다항에서 죽었다."(같은 자료 집 『凶殘の獸蹄』, 85-86쪽)

阿部를 내보냈다. 우리들이 옆집으로 들어가 보니 40세 가량의 부녀자와 7, 8세 가량의 남자 아이가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곧 방 안을 수색해서 40세 가량의 남자를 찾아내어 그를 끈으로 묶은 뒤 발로 차면서 밖으로 밀어냈다. 방 구석에 있던 그 부녀자는 이 광경을 보고 곧 울부짖으면서 그 남자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남자 아이도 울면서 그 남자의 다리를 붙들었다. 그러나 나는 욕을 하면서 진흙이 묻은 군화발로 그 여자의 머리를 걸어차고 그 남자를 밖으로 끌어냈다.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틀림없이 잡혀갈 것을 알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남자의 허리춤에 끼워 넣었다. 내가 그것을 빼앗아 보니 버드나무 잎을 섞어 만든 떡이었다. 나는 그 남자를 땅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차고 짓밟은 후 마당으로 끌고 나왔다. 이때 그 부녀자의悲痛에 젖어 절규하는痛哭 소리는 이웃집에서도 잘 들렸다.

나와 阿部가 나와 보니 이웃집에서 그 부녀자를 強姦하고 나온 小川이 다른 두 명의 남자를 묶어서 끌고 나왔고 뒷쪽에서는 강간당한 부녀자의 통곡 소리가 진동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12시가 좀 지나자 隊長의 명령으로 이들을 집합시켜보니 이 200여 호의 조그만 마을에서 150명이 잡혔는데, 그 가운데에는 노인과 소년들도 있었다. 인원이 다 집결되자 일본군은 붙잡힌 농민들을 대대로 끌고 갔다. 정오가 되자 태양이 매우 뜨거워졌다. 당시 끌려온 농민들은 등에 무거운 彈藥 상자를 짊어지고 일본군의 감시 하에 힘을 다해 걷고 있었다.……이들 가운데 매우 갈증을 느끼고 있던 어떤 사람이 길옆의 便器桶에 물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마시기 시작하자, 小川이라는 사병이 뛰어 와서 그 변기통을 발로 차서 덮어뜨렸다.<sup>46)</sup>

46) 같은 사료집 『凶殘의 獸蹄』, 216-217쪽. 이 사례는 1941년 여름과 가을에 山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獨立混成第10旅團(제59師團의 前身)이 博山以西 지구에서 농민들을 검거해서 勞工에 충당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동 여단 제44대대 제3중대 軍曹였던 大木仲治의 술회 내용이다.

특히 徵用과 徵兵 과정에서 壯丁에게는 10원, 兒童에게는 5원씩의 현상금이 붙어 '인간 사냥'이 벌어지는 광경조차 볼 수 있었다고 한다.<sup>47)</sup>

일제는 각지에서 붙잡아 온 사람들을 임시로 勞動者收容所에 수용한 뒤, 이들을 잔혹하게 다뤘다. 그 결과 수용소에 붙들려온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sup>48)</sup>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石家莊勞工訓練所는 주위에 3점의 전기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몇 겹의 封鎖壕와 십여 개의 砲臺가 설치되어 있었고 일본군이 엄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다. 여기에 갇힌 노동자들은 통상 몇 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 노동자에게는 自由가 박탈되었다.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大小便도 통일적으로 행해졌으며, 밤에 就寢하거나 대소변을 볼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또한 밥도 口슴에 맞춰 먹어야 했으며, 가벼운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47) 鐘人方, 「最近敵寇在華北的'掃蕩'戰」, 『解放日報』 1942년 2월 28일).

48) 일본군의 무자비한 탄압은 노동자들의 반항을 불러 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일본군의 탄압은 더욱더 가혹해졌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생존자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어느 날 밤에 石家莊訓練所에 수용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일본군 哨兵을 때려 죽인 후 수용소 문밖으로 몰려나갔지만, 일본군의 경비가 삼엄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용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다음날 일본군은 돌아온 300여 명의 노동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집단으로 학살할 준비를 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인 나(郭家德)도 묶인 채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옷옷을 벗어던진 일본군들은 한 손에 大劍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노동자들 주위에 서 있었다. 이때 명령이 떨어지자 이들 망나니들이 사나운 이리떼처럼 노동자들에게 달려들어 亂刀질을 했다. 일순간 200여 명의 머리가 잘려져 나갔고 鮮血이 금방 땅을 붉게 물들이다가 곧 凝固되었다. 이러한 잔악한 屠殺 장면을 목격한 나는 끈기절했다가 얼마 후에 깨어났다. 이때 일본군들은 잡혀온 노동자 300여 명을 모두 살해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에게는 사형 집행 광경을 보게 하기 위해 살려두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을 도살한 일본군은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내어 수용소 주위에 둘러쳐진 전기 철조망의 나무 밑쪽 위나 正門·使所·길옆, 심지어 밥먹는 곳까지 걸어두었다(같은 사료집 『凶殘의 獸蹄』, 218-219쪽).

치료를 받지 못했고 중병에 걸렸을 때에는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죽음을 기다려야 했다.<sup>49)</sup> 상당수의 사람들은 1주일마다 한 번씩 피를 뽑아 부상당한 일본군에게 수혈을 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박해와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짧은 인생을 마감해야 했다.<sup>50)</sup>

### 3. 住民의 衣食住實態

당시 晉察冀邊區, 특히 冀熱遼地區 주민들은 일제가 治強의 일환으로 공산 유격 근거지에 대한 封鎖·分割·蠶食工作과 더불어 人的·物的 交流의 통제, 그리고 集家工作을 실시함으로써 공산 유격 근거지였던 지역에서는 극심한 물자 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쇄·분할·잠식 공작 등에 따른 빈번한 군사 토벌과 인적·물적 교류의 통제는 물자의 원활한 유통을 불가능하게 했다. 또한 일제가 집가공작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공산 근거지를 無住地帶(혹은 無人地區)로 설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農耕을 금지시킴으로서 무주지대내에 있던 수많은 농경지는 황무지로 변해 버렸고, 그에 따라 농경지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sup>51)</sup>

49) 이와 관련해서 古河鑛業足尾鑛業所의 상황 보고에 의하면, “……식사로는 饑頭(粟)와 湯만(湯)이 지급되었다.……수용소의 病室에는 밤낮으로 신음하는 자, 노행이 완전히 곤란한 자 등 실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의사나 치료실은 전혀 없었고……중국인 노동자 중에는 매일같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같은 자료 『資料 中國人強制連行』, 554-555쪽).

50) 같은 사료집 『凶殘의 獸蹄』, 218쪽.

51) 실례로 『만주국』 熱河省의 興隆·靑龍·寬城·承德·豊寧·灤平·隆化 등의 현에서는 약 40만 畝의 토지가 황폐화되었으며(『日軍侵華時期原承德地區部分縣直接損失統計表』, 中共承德地委黨史資料徵集辦公室 編, 『暴行與血淚』, 169쪽), 또한 冀熱遼行署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古北口에서 山海關까지 설치된 700里의 무주지대의 면적은 4만 2,000평방km이었

게다가 일제가 농경지의 分布와는 무관하게 집단부락을 설치함으로써 농경지와 집단부락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사실상 농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처럼 원활하지 못한 물자의 유통과 농경지의 축소는 자연히 공산 유격 근거지, 특히 기열리지구 주민들의 식량 등의 물자 사정을 악화시켰다.

당시 일제가 극도의 식량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配給制度를 실시<sup>52)</sup>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대부분 配給物資에 의존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배급 양식은 '共合面'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모두 콩깻묵, 橡子面(상수리 나무를 삶아서 만든 가루), 쌀겨, 곰팡이가 슬어 썩은 냄새가 나는 양식 등을 섞어 삶아 만든 것이었다. 특히 配給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집단부락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쌀겨, 橡子面만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붓고 大便조차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sup>53)</sup> 또한 1945년 中共邊區政府가 熱河省 灤平縣 四海村과 峙峰茶 등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곳의 주민들은 하루에 옥수수죽 두 끼만을 먹고 살았다고 한다.<sup>54)</sup> 심지어 그것마저도 동이 날 경우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草根木皮로 延命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열거한 것처럼, 각 지구의 일본군이 북지나방면군에게 행한 報告 내용 및 당시 「만주국」군 第五軍管區 참모장이었던 吳國貴的 審問調查書, 그리고 당시 진찰기변구의 팔로군 軍區司令이었던 聶榮臻의 회고록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고, 장성 양측의 6개 현에서는 600만 畝의 토지가 황무지로 변해 버렸다고 한다(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 347-348쪽).

52)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 350쪽.

53) 軍事科學院外國軍事研究所 編, 中國抗日戰爭史料叢書 『凶殘的獸蹄』(日軍暴行錄)(北京, 解放軍出版社, 1994), 85쪽.

54)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 352쪽.

保定管内 산간 지방에서는 강우량 부족 때문에 나뭇잎이나 껍질로 연명하면서 평야 지대로 피난가고 있다. 邊區軍區政治部는 청년층의 도망을 저지하기 위해 일반 청년의 登錄을 실시하거나 상호간에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55)

1942년 5월 나는 일본인 고문 岩本 소속의 「만주국」 군을 거느리고 시찰을 하는 과정중……永寧에서 百姓들이 나뭇잎을 주워모아 햇볕에 말려 겨울 동안의 食用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이 지방에서 강제로 이주되어온 농가는 대략 800호였는데, (그들은) 극도의 貧困과 非衛生的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56)

1942년 봄 군중과 부대에는 모두 식량이 떨어졌다. 봄이 되자 백양나무(楊樹)와 버드나무에 잎이 돌아나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그 잎을 주요한 양식으로 삼았다. 우리 부대의 취사반에서는 그 나뭇잎을 채집해도 되는지를 물어왔다. 이에 대해 나는 軍區의 政治部를 통해 모든 부대의 취사반이 촌락 부근에서 백양나무와 버드나무의 잎을 채집하지 말고 군중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訓令을 내렸다.57)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굶어 죽은 자가 속출하는 것은 日常事였다. 실례로 興隆縣 大水泉 집단부락에서는 1년 사이에 그 부락민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200여 명이, 廠溝 집단부락에서는 2년 동안에 부락민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265명이 굶어 죽었다고 한다.58)

55) 日本防衛廳研修所戰史室 著, 『北支の治安戰』(이하에서는 『治安戰』이라 약칭) 2 (東京, 朝雲新聞社, 1968), 274-275쪽.

56) 『吳國貴筆供』(1954. 7. 28),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東北大討伐』(北京, 中華書局, 1991), 651쪽.

57) 聶榮臻, 『聶榮臻回憶錄』中(北京, 解放軍出版社, 1984), 540쪽.

58) 같은 사료집 『凶殘的獸蹄』, 85쪽.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서 만일 주민들이 조금의 양식이라도 숨겼다가 발각되면 곧 '經濟犯'이나 '通敵資匪'(공산군과 내통하여 공산군을 도와준 者)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받았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興隆縣六道河子의 어느 사람은 병에 걸려 쌀로 죽을 끓여 먹었는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토했다고 한다. 이때 구토한 오물 속에 쌀알이 있는 것이 괴뢰 경찰에게 발각되어 끌려간 뒤 양식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추궁받는 등 갖은 박해를 다 받기도 했다고 한다.<sup>59)</sup>

또한 일본군은 平地에서는 棉花를, 旱地에서는 阿片을 심게 하고 수확한 면화나 아편을 모두 官價로 收買해 갔는데, 官價는 약 탈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헐값이었다. 즉 熱河省에서의 棉花市價는 1斤당 10여 원이었는데 비해 관가는 3毛(0.3원)였다.<sup>60)</sup> 이러한 조치는 식량 작물의 재배를 축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代用 作物의 헐값 매입은 농민들의 식량 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편 농민들의 물질적 고통이 食糧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농민들의 衣服 실패는 그들의 삶을 더욱더 춥게 만들었다. 집단부락민들은 매년 1인당 布 10尺이 배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많아야 3, 4척만이 배급되었으며, 몇 년 동안에 1척의 布조차 배급되지 않은 지방도 상당수 있었다. 이것은 관리·경찰·特務들이 중간에서 착복했기 때문이었다. 집단부락민들에게 배급된 옷감도 질이 매우 나쁜 인조 섬유로서 물에 한번 비벼 빨면 곧 헤어졌기 때문에, 부락민들은 그것을 '唾沫緞'이라고 불렀다고 한다.<sup>61)</sup> 당시 집단부락민들의 의복 실패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다

59) 陳平,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3집, 225쪽.

60) 같은 자료집 『澱血的武士刀』, 350쪽.

61) 陳平,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3집, 225쪽; 陳平, 「千里無人區」, 南開大學歷史系·唐山市檔案館 合編, 『冀東日偽政權』(北京, 檔案出版社, 1992), 357쪽.

음과 같은 팔로군 병사의 目擊談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우리 부대가 그 일대에서 활동할 때, 집단부락에서 농경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찢어진 布나 麻袋 조각을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단지

다 해어진 모피로 안을 댄 중국식 옷옷만을 몸에 걸치고 살았는데, 겨울에는 그 옷만을 걸쳤고 여름에는 그 옷을 벗고 살았다. 그는 밭에서는 옷을 땅에 벗어 두고 맨몸으로 일을 했다. 한 번은 부대가 灤平縣 黃土梁子에 들어갔을 때, 몇몇 병사들이 물을 마실려고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안에서 여인이 당황해 하면서 “동지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원래 집안에는 두 명의 젊은 시누이와 울케가 있었는데, 한 명은 벌거벗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구멍이 찢린 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문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병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들이 걸쳤던 옷을 벗어 집안에 던지자, 그들은 비로소 부끄러워하면서 병사들을 맞아 들었다. 이러한 광경은 무인지에서 활동해 본 사람들은 모두 본 적이 있었다.<sup>62)</sup>

또한 상술한 1945년도 中共邊區政府의 熱河省 灤平縣 四海村과 峙峰茶 등지에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四海村의 경우 64호, 370명 가운데 20호, 150명은 움터 설달에 솜옷이 없이 홑옷만을 입고 살았고, 峙峰茶의 경우 24호, 130명 가운데 반수는 의복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벌의 찢어진 옷밖에 없었고 부녀자들과 어린이들은 대부분 벌거벗은 채로 매일같이 온돌 위에 몸을 녹이고 있다가 한낮이 되어서야 밖에 나와 햇볕을 쬐고 있었다고 한다. 밤에는 이불이 없어서 온돌방을 뜨겁게 달

62)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5쪽;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7쪽.

군 후 누워 자지만 몸의 윗쪽은 춥고 아랫쪽은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몸을 아래 위로 굴리면서 자야 했다고 한다. 또 어느 17, 8세의 여자는 옷이 없어서 밤낮으로 은들방에서 麻袋 조각을 덮고 지냈다고 한다.<sup>63)</sup> 어떤 집에서는 한 집에 다 떨어진 바지가 하나밖에 없어서 남자가 그것을 입고 나가면 여자는 벗은 채로 생활했는데, 이러한 집에는 집안에 몸을 숨기는 구멍을 파놓아 사람이 찾아오면 그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고 한다.<sup>64)</sup>

한편 일제는 공산 근거지를 焦土化시키고 '匪民分離', 즉 팔로군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해주고 있던 주민들을 팔로군과 격리시켜 팔로군 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集家工作을 실시했다. 이 공작의 일환으로 일제는 대부분의 공산 근거지를 無住地帶로 설정한 뒤,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의 집들을 파괴하거나 불태워 버렸으며,<sup>65)</sup> 이 지역에서의 農耕과 住居를 금지시켰다. 그 결과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 집단부락에 강제로 수용된 주민들은 자신들의 가옥을 스스로 지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각 집마다 할당된 집터는 3丈平方(약 10평방m)이었으며, 地勢가 험소한 지방에서는 1.5-2丈(약 5-7평방m)이었다. 그런데 집단부락에 수용될 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새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초막이나 움집 등을 짓고 살았다. 기열료지구의 경우, 이러한 상태는 1942년에 집단부락으로 수용된 뒤부터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 결과 겨울에는 사방에서 눈바람이 스며들어 冷氣가 살을 에이는 듯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 실례로 興隆縣 한 곳에서만도 몇 년 동안

63)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 352쪽.

64) 中共唐山市委黨史研究室 編, 『冀東革命史』(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3), 341쪽.

65) 실례로 「만주국」 熱河省의 경우, 삼광정책으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본 興隆·靑龍·寬城·承德·豐寧·灤平·隆化 등의 현에서는 모두 33만여 채의 가옥이 불태워졌다고 한다(같은 통계표 「日軍侵華時期原承德地區部分縣直接損失統計表」, 169쪽).

에 凍死者가 1,000여 명에 달했다. 여름에는 汚水·糞尿·진흙탕물 등이 흘러들어 악취가 코를 찔렀고 파리·모기·쥐·빈대 등이 들끓어 흑사병·장티푸스·콜레라·痢疾 등의 전염병이 만연되었다.<sup>66)</sup>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집단부락민들의 주거 실태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부락 내의 가옥……새로 흙으로 만든 온돌은 濕해서 장작을 때면 수시로 흰 수증기가 솟아 올랐다. 밤중에는 찬바람이 스며들어 몇 가족이 하나의 온돌 위에 꼭 끼어서 자야 했는데, 마치 물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매우 추웠다. 집에는 담장이 없었고 지붕도 제대로 덮여 있지 못했으며, 이불이나 寒風을 막을 만한 것도 없었다. 어느 때 비가 오거나 눈발이 휘날리면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가옥은 마치 새장처럼 매우 답답하고 어수선하고 더러웠다. 사람과 돼지·닭이 한데 모여 있었고 마당이나 공간이 없었다. 도처에는 大便과 쓰레기가 널려 있어서 악취가 심했다. 온돌 위에는 벌레가 있었고 몸 안에는 이가 있었으며,……여기에서 번창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細菌이었다. 이곳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질병과 전염병과 죽음이 판치는 집이었다. 이곳은 “사람 우리”였다.<sup>67)</sup>

이처럼 집단부락민들은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밀집되어 살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많이 들었고, 그 결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당시 주민들의 신체는 열악한 衣食住 환경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허약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마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망율이 매우 높았다. 실례로 1943년 여름에 전염병이

66)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4쪽;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6쪽; 같은 사료집 「凶殘的獸蹄」, 85쪽.

67) 丁民, 「人圈」(「北方文化」, 1936년 3월호)(여기에서는 같은 사료집 『飢血的武士刀』, 349쪽에서 재인용).

한번 휩쓸고 지나가자, 「만주국」 열하성 興隆縣에서만 6,000여 명이, 斡仗子村에서는 하룻만에 40여 명이, 大水泉村에서는 페스트가 유행하면서 300명 가량이, 遵化縣 新立村의 집단부락에서는 53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한다.<sup>68)</sup> 또한 冀東地區에서는 平泉縣의 경우 7만여 명 가운데 1만여 명이, 柳溪鄉에서는 11개 부락 5,300여 명 가운데 2,100여 명이, 建昌縣에서는 7,700여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한다.<sup>69)</sup> 그 결과 집집마다 시체가 널려 있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sup>70)</sup> 게다가 1943년 五台狐峪溝에서는 60% 이상의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으며, 부녀자들 가운데에는 일본군과 괴뢰군에게 強姦을 당해 30%가 性病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sup>71)</sup>

이처럼 집단부락 내에서 전염병이 만연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생활함으로써 전염병의 感染度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營養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耐病性이 低下되었기 때문이다.

#### 4. 政治·社會的 生活實態

당시 농민들의 정치·사회적 생활 실태는 일제의 화북 점령 정책 자체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게 추진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제의 화북 점령 정책의 精髓라고 할 수 있는 治強은 기존 농민들의 생활이나 심리 상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68)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6쪽 및 같은 사료집 『凶殘的獸蹄』, 84-85쪽.

69) 같은 책 『冀東革命史』, 340쪽.

70)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6쪽 및 같은 사료집 『凶殘的獸蹄』, 84-85쪽.

71)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日軍屠殺錄), 352쪽.

한 사실은 '匪民分離'를 요체로 한 集家工作 과정에서도 쉽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의 인용문들은 증언 내용의 일부이다.

興隆縣 馬尾溝의 인민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든 집을 떠나지 않으려고 산 속의 굴 속에 숨어서 배고픔을 참고 있었다. 그런데 교활한 일본군이 警察犬을 풀어 도처에서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사람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굴 속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그 한 예

로 어느 부녀자는 아이를 업고 굴 속에서 나와 野菜를 찾다가 발견되었는데, 15명의 일본군에게 輪姦을 당했다. 이때 일본군들은 그녀의 왼쪽 乳房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추궁했지만, 그녀가 대답을 하지 않자 母子를 모두 살해했다.<sup>72)</sup>

이렇게 20여 일 동안에 全長 약 100km, 폭 4km여, 약 400평방km 지구 내의 가옥 1만 5,700여 채를 불사르고 수많은 거주민을 강제로 이주시켜 광대한 농경지가 황무지로 변해버렸다. 동시에 주민 200여 명을 살해했다. 후에 한 조사에 의하면 이주당한 주민들 가운데 172명이 餓死하거나 凍死했다고 한다.<sup>73)</sup>

오전 6시 大隊砲가 발사되니 부락에서 흰 연기가 솟아 올랐다. 수 마리의 닭이 날아 올랐고 까마귀가 지붕 위를 날고 있는 것이 보였다. (砲의) 첫 발과 동시에 坂本討伐隊는 일시에 돌격을 했다. 부락에 다달아 보니 어느 집에도 사람 그림자는 없었다.……무심코 옆을 쳐다보니까 멀리 소매를 이끌고 산기슭으로 도망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산기슭에 있다. 계속 쫓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는 것이 보였다.·

72) 같은 사료집 『凶殘의 獸蹄』, 82쪽.

73) 일본군 육군 중장 鈴木啓久의 回顧錄 내용의 일부(같은 사료집 『凶殘의 獸蹄』, 84쪽에서 재인용).

...이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도 30명에 달했다. 現場에 와서 살펴보니 거의 노인과 어린이들이었다. .... 그 후에는 닭·계란·쌀·高粱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한 곳에 모았고, 냄비나 솥 등은 모두 두들겨 부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高粱倉庫에 불을 질러 한 채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렸다. 먹을 것은 모두 약탈했고(家屋을) 한 채도 남기지 않고 불태워 버리는 데에 약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sup>74)</sup>

무인지구는 소름이 끼치는 곳이다. 方圓 몇 10里 내에서는 굴뚝의 연기나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고, 닭이나 개울음 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다. 田野에는 잡초만이 무성했고 마을에는 무너진 건물벽이나 담벽의 잔해만이 쌓여 있었다.<sup>75)</sup>

위의 인용문들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일제는 集家工作, 즉 무주지대 및 집단부락 설치 공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공측 근거지에 있는 수많은 주민들을 살해했고, 곡물이나 가축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빼앗았으며, 심지어 냄비나 솥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마저 모두 두들겨 부수었고, 가옥들은 모두 불태워서<sup>76)</sup> 도망친 주민들이나 팔로군들이 다시 돌아와 생활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결국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불사르고 모조리 빼앗는 三光政策은 중공측 근거지를 초토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무주지대로 설정된 지구에 살던 주민들을 마을에서 내몬 뒤 集團部落에 강제 수용한

74) 같은 증언록 『證言記錄 三光作戰---南京虐殺から滿洲國崩壊まで』, 79쪽.

75) 같은 사료집 『凶殘の獸蹄』, 84쪽 및 錢鈞, 「“無人區”升起了炊煙」, 『星火燎原』(選編之七)(北京, 中國人民解放軍戰士出版社, 1982), 264쪽.

76) 당시 일본군이 중공측 근거지 내의 부락들을 모조리 불태울 때 나는 화염과 연기 때문에, 지상의 정찰기들이 정찰을 할 수 없다고 항의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같은 증언록 『證言記錄 三光作戰---南京虐殺から滿洲國崩壊まで』, 86쪽).

조치는, 특히 주민들의怨恨을 사게 되었으며, 삼광정책과 아울러 八路軍側의 對民宣傳에 이용되었다.<sup>77)</sup>

집단부락에서는 팔로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밤에는 항상 징소리를 내어 군중들이 신호를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이때 군중들은 담장 위로 뛰어 올라가 함께 합성을 지르도록 했다. 낮에는 항상 해가 높이 떠올라 平安無事함을 확인한 후에야 부락의 문을 열어 사람들이 밖에 나가 농경 활동을 하게 했으며, 저녁에는 해가

지기 전에 문을 닫고 엄중하게 경계했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거나 풀이 흔들려도 며칠씩 문을 열지 않았다.<sup>78)</sup> 게다가 많은 토벌대와 괴뢰 경찰들이 집단부락을 봉쇄하고 있었다.

또한 일제는 집단부락민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부락에서 保甲制度를 실행했다. 보갑제도는 10戶를 1甲, 30戶를 1保, 1개의 집단부락을 鄉으로 조직했다. 그리고 성년 남자에 대해서는 '良民證'을 발급해서<sup>79)</sup> 부락의 출입이나 여행시에 수시로 검사해서 팔로군이나 항일 분자들의 부락 내 잠입을 차단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투항자, 부랑자, 특무, 비밀 조직인 興亞會, 密探班, 情報網 등을 이용하여 집단부락민들의 言行을 수시로 감시하고 정찰했다. 특히 특무들은 공산당 공작원으로 위장한 채 밤에 부락민들을 시험삼아 찾아가는 등의 행위로 부락민들 상호간에 不信感을 조장했다. 또한 각 촌에는 정보원들이 파견되어 있어서 이들이 수시로 정보를 일제측 거점에 보내고 있었다.<sup>80)</sup>

일반적으로 집단부락에 수용된 농민들은 자유로운 경작권이 없

77) 『鈴木啓久中將回想錄』에 의한다(같은 자료집 『治安戰』 2, 233-234쪽에 所收).

78) 같은 자료집 『凶殘의 獸蹄』, 84-85쪽 및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5-356쪽.

79) 같은 자료집 『凶殘의 獸蹄』, 85쪽.

80) 文成, 『豊玉寧地區反「蠶食」鬭爭』,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231쪽.

있고,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부락을 떠나는 것, 심지어 小賣買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금지당했다.<sup>81)</sup> 청장년의 남자들은 대부분 自衛團에 편성되었고 이들은 매시 순찰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으며, 매달 15일 내지 20일씩 ‘勤勞奉公’이라는 구실로 경비 도로·堡壘의 修築, 광물 채굴, 封鎖壕의 掘鑿 등과 같은 강제 勞役に 종사해야 했으며, 밤에는 집단부락 주위에 둘러친 담벽에 올라가 순찰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피로에 지쳐 죽었다.<sup>82)</sup> 이처럼 일제가 집단부락에서 勞役을 강요하거나 侮辱과 迫害 혹은 監視를 했기 때문에,<sup>83)</sup> 자신들의 처지가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여긴 주민들은 집단부락을 “사람 우리(人圈)”라고 불렀다.<sup>84)</sup>

일본군은 집단부락민들에게 政治犯·思想犯·經濟犯·密輸犯·泄密犯·通匪·濟匪·資匪 등의 수많은 罪名을 제멋대로 씌워 갖은 박해를 했다. 실례로 몇 장의 편지 봉투를 찾아내면 곧 ‘通匪罪’를 씌웠고 四書를 읽으면 ‘思想犯’의 죄명을 씌웠으며, “우리는 중국인이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反滿抗日’<sup>85)</sup>의 죄명을 씌워 중벌을 가했다.<sup>86)</sup> 심지어 조금만 반항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취해도 제멋대로 죄명을 붙여 총살에 처했으며, 개인이 布匹을 賣買하거나 돼지를 잡아도 ‘經濟犯’이라고 하여 처벌을 가했다. 또한 어느 한 집단부락의 식량을 다른 집단부락으로 가지고 갈 수 없었고

81)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日軍屠殺錄), 351쪽.

82)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日軍屠殺錄), 351쪽 및 같은 사료집 『凶殘的獸蹄』, 85쪽.

83) 같은 사료집 『凶殘的獸蹄』, 84쪽.

84)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5쪽.

85) 괴뢰 『만주국』에 반대하고 일본에 반항한다는 의미이다.

86)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8쪽 및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5쪽.

더욱이 國境 밖으로는 운반할 수 없었다. 만일 발각되면 ‘密輸犯’이라 하여 엄벌에 처해졌다.<sup>87)</sup>

집단부락에서는 매달 한 번 혹은 매년 한 차례씩 대대적인 檢學旋風이 불어 수많은 농민들이 끌려가 살해되었거나 徵兵·질병·饑餓 등의 요인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례로 무주지대의 중점 지구였던 「만주국」 熱河省 興隆縣의 경우, 1933년 3월 일본군에게 점령당할 때 총인구는 약 14만 명이었지만, 무주지대가 설치된 뒤 몇 년간에 全縣에서 3만 4천여 명이 살해되었고, 凍死했거나 질병, 飢餓 등으로 사망한 자가 1만여 명에 달했으며, 비참한 생활로 인해 절대 다수의 부녀자들이 生殖 능력을 상실했다고 한다. 그 결과 1945년 일제의 패망시까지 12년 반 동안의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약 18-19만 명에 달해야 했지만, 1945년에는 10만 명도 못되었다고 한다.<sup>88)</sup> 또한 靑龍縣에서는 1934년에 28만여 명이었던 것이 1945년에는 25만여 명으로, 灤平縣에서는 1933년에 24만여 명이었던 것이 1945년에는 21만여 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sup>89)</sup> 또 하나의 특이한 사실로서 삼광정책에 따른 대량 학살과 상술한 노동력의 징발로 무주지대로 설정된 지역에는 “寡婦村”의 양상을 띤 부락이 많았다고 한다.<sup>90)</sup>

87) 같은 사료집 『濺血的武士刀』, 351쪽

88)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8-359쪽.

89) 같은 책 『冀東革命史』, 343쪽.

90)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7쪽 및 楊福臣, 「侵華日軍在薊縣暴行綜述」,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天津市薊縣委員會文史工作委員會編, 『侵華日軍在薊縣暴行』(『薊縣文史資料』專輯, 內部資料)(天津, 同委員會, 1995. 5), 6쪽. 실례로 興隆縣 秋木林子와 大莫峪村에는 130호의 人家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180명의 남자가 일제측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리하여 이 두 마을은 “寡婦村”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위의 회역록, 227쪽). 또한 만리장성 부근의 前干欄村에서는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 가운데 100여 명이 일제측에 의해 살해되었고, 孫各庄村에서는 300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80명 가량의 청장년들이 일본군에 의해 熱河省쪽으로 끌려가 살해되었다. 이리하여 이 두 마을 역시 寡婦村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楊福臣, 위의 증언록, 6쪽).

또한 부녀자들에 대한 兵士들의 凌辱은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일비재했으며, 그 가운데 '慰安婦'로서 軍에 강제로 징용되는 일조차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sup>91)</sup> 일본군은 집단 부락 내에서 부녀자들을 공개적으로 強姦하는 것을 합법적인 일로 여겼다고 한다. 당시에 일본군은 집단부락민들에게 大門을 열어두도록 했고 밤에도 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가 부녀자들을 強姦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92)</sup> 그로 인해 부녀자들이 능욕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능욕당하는 것에 항거하다가 피살되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만일 부녀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곧 '通匪犯'이라는 罪名으로 살해했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집단부락에서는 심중 팔구의 부녀자가 능욕을 당했는데, 그 중 30%는 性病에 걸렸다고 한다.<sup>93)</sup>

한편 당시 집단부락에서 물자 공급이 풍족했던 것은 阿片뿐이었다. 각급 정부에는 '禁煙局'이라는 部署가 설치되어 아편의 흡입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 부서는 아편 재배를 관장하는 기구였다. 당시 농민들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가 곤란할 정도로 농경지가 축소되었지만, 아편 재배 면적은 오히려 매년 증대되고 있었고, 아편 出荷量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아편을 충분히 출하하지 않으면 생활 물자를 배급하지 않는다는 규정까지 두었다.<sup>94)</sup> 실제로 당시 아편 생산의 중요한 기지였던 열하성에서는 1畝당 아편 생산량을 13-16兩으로 규정했는데 당시 이러한 생산량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만일 규정된 양의 아편을 출하하지 않으면 생활 용품을 배급하지 않

91) 『解放日報』1942년 1월 9일.

92) 陳平,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같은 자료집 『文獻·回憶錄』, 제3집, 224쪽.

93) 같은 자료집 『凶殘的獸蹄』, 86쪽.

94)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7쪽.

았을 뿐만 아니라 구타를 가하거나 감옥에 보내졌으며, 심지어 徵用에 끌려가기도 했다고 한다.<sup>95)</sup>

상술한 것처럼 대대로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던 정든 고향에서 쫓겨나 '사람 우리', 즉 집단부락에 갇힌 뒤, 모든 自由를 박탈당한 채 侮蔑과 迫害와 監視 속에서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던 집단부락민들은, 일제에 대한 증오심과 더불어 삶에 대한 자포자기 심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이때 집단부락민들에게 삶에 대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아편이었던 것이다. 집단부락민들은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지만 아편 흡입만은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아편을 흡입하거나 아편 주사를 맞는 일이 만연되어 성년 남자 가운데 6,70%가 아편에 손을 대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들의 아편 흡입율은 더 높았다.<sup>96)</sup> 아편 흡입은 일제가 집단부락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아편 판매를 통해 財政을 확충하기 위해 半公開의으로 조장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제가 대량의 아편 생산과 흡입을 방조하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편을 흡입하게 되자, 항일 세력이 幹部를 물색하거나 민중을 동원해서 팔로군에 참여시키는 일 등 항일 활동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결국 당시의 항일 무장 투쟁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했다.<sup>97)</sup> 이와 같은 일제의 파쇼적인 통치와 노예화 정책으로 건달패나 부랑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밑매꾼 또한 매우 많아졌다.<sup>98)</sup>

요컨대 1940년대 전반기 일제의 治強이 실시되면서 진찰기변

95) 같은 책 『冀東革命史』, 341쪽.

96) 陳平, 같은 글 「千里無人區」, 357쪽 및 陳平, 같은 글 「一個特殊的戰略地帶——“無人區”」, 226쪽. 실례로 團場縣의 경우 全縣의 인구가 24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아편 흡입자가 5만 5천 명에 달했다고 한다(같은 책 『冀東革命史』, 342쪽).

97) 같은 책 『冀東革命史』, 342쪽.

98) 姜宇, 같은 보고 「一九四三年下半年冀熱邊情況報告」(1943. 12. 30), 85쪽.

구, 특히 기열료 지구 주민들은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 주민들의 생활상은, 1944년도에 「만주국」 國務院 軍事部 思想戰研究部가 분석한 비밀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西南地區의 地理 및 각종 사회 조건은 集家工作 등이 초래한 각종 民生 문제와 관계가 매우 컸다. 조그만 땅 덩어리에 의존하고 있던 주민들을 비교적 큰 부락으로 집결시킨 결과 거주지와 경작지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그러한 조치는 풀 한포기 나무한 그루에도 생활상에 영향을 받는 빈곤한 주민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각종 모순을 야기시켰다. 예를 들면 광대한 무주지대를 획정함으로써 농경지를 축소시켰는데, 특히 본 년도에 실시한 耕作禁止地區의 劃定은 민중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가령 靑龍縣의 경우 금년의 경작지는 작년에 비해 약 50%가 감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무주지대에는 약간의 민중들이 隱居하고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匪方(팔로군---인용자)의 보호하에 있다. 이러한 정황은 匪方이 招民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平地로 이주당한 뒤에는 생활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밖에 생활상의 기초가 워낙 빈약한 주민들로서는 강제 이주당한 뒤 집을 짓고 방위 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따른 人力·物力을 감당할 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치안 불량으로 彼我 쌍방간의 쟁탈 대상이 된 주민들의 희생이 매우 컸다. 더욱이 집단부락의 각종 부담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움으로서 民力을 더욱 枯渴시켰다. 이런 열악한 조건은 그후 주변 상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敵匪에게 이용될 수 있는 틈을 주었던 것이다.<sup>99)</sup>

99) 軍事部思想戰研究部, 『西南地區治安問題之考察』(1944. 4), 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東北大討伐』(北京, 中華書局, 1991), 612쪽.

## 結 論

결론적으로 치안강화운동은 진찰기변구, 특히 기열료지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일제가 無住地帶(無人地區) 및 集團部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혹은 소탕 작전 때, 유격 근거지 軍民의 생존 조건을 철저히 파괴시키기 위해 三光政策을 실시함으로써, 공

산 유격 근거지 농민들에게 엄청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즉 일제는 중공측 근거지나 유격구에 있는 주민들을 다치는 대로 살해하거나 끌고 갔고, 곡물이나 가축 등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빼앗았으며, 심지어 냄비나 술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마저 모두 두들겨 부수었고, 田畝의 농작물이나 과수원 등은 모두 파괴했으며, 가옥들은 모두 불태워서 도망친 주민들이나 팔로군들이 다시 돌아와 생활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일제는 무주지대로 설정된 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마을에서 내몬 뒤 집단부락에 강제로 수용한 채 이들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제하거나 엄격하게 감시했다. 당시 집단부락민들은 대부분 극빈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로 가옥을 지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상당수가 초막이나 움집 등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추위나 질병 등에 시달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얼어 죽거나 전염병으로 사망한 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참한 생활로 인해 수많은 부녀자들이 生殖 능력을 상실했다. 또한 농경지의 상당 부분이 무주지대·封鎖壕·遮斷壁·토치카·警備道路 등에 의해 占用되었으며, 집단부락 주위에 농경이 허가된 토지는 매우 적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의 경작지는 격감되었고, 이 상황에서 自作農의 小作農化, 혹은 농민층의 下降分化가 촉진되었으며,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이 小作地를 얻는 것도 더욱 어려워졌

다. 게다가 일제는 障地·경비 도로 구축이나 탄약 운반, 지하 자원 개발 및 군수 공업 등에서 소요되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중국인 청장년들을 체포·연행해 갔으며, 役畜과 大車 등을 징발·약탈해 갔다. 이처럼 농경지가 축소되고 노동력과 역축·농기구 등이 징발·약탈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은 격감되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食糧恐慌을 초래했다. 이처럼 극도의 飢餓의인 삶에 허덕이고 있던 당시의 주민들은 대부분 옷이 없어서 헐벗고 지내다시피 했다. 이들 주민들을 더욱더 춥고 배고프게 만든 것은 일제의 과중한 徵稅와 각종 徵發이었다. 징세와 관련하여, 더욱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준치안 지구, 즉 일제 세력과 공산당 세력이 같이 활동하고 있던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혹은 공산당측의 兩面村 政權 건립에 따른 은폐된 항일 활동의 일환으로 일제 및 공산당 세력에게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중공측의 근거지였다가 일제에 의해 점령된 지역의 주민들, 특히 집단부락에 강제 수용된 주민들은 자유로운 耕作權이 없었고, 친척집을 방문하거나 부락을 떠나는 것, 심지어 小賣買 행위까지도 엄격하게 금지당했다. 이처럼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던 주민들은 각종 勞役과 侮辱·迫害에 시달렸다. 특히 일본군의 強姦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여기에 항거하다가 살해당하는 부녀자들이 매우 많았으며, 능욕당한 부녀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性病에까지 시달려야 했다. 이처럼 '罪囚 아닌 罪囚' 취급을 받으면서 목숨을 연장해야 했던 집단부락민들의 삶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잊게 만들어 주었던 것은 阿片이었다. 당시 일제는 집단부락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아편 판매를 통

한 財政 확충을 위해 아편 재배를 권장하고 아편 흡입을 조장했다. 그 결과 집단부락민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편을 흡입하거나 주사를 맞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아편 흡입율이 더 높았다.

상술한 것처럼 일제의 치강으로 인해 극도의 열악한 생활과 정치·사회적인 박해와 감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진찰기변구, 특히 기열료지구 주민들의 실태를 고찰해볼 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무자비한 점령 정책을 구사하고 있던 일제측이 두려워 순종을 했겠지만, 대다수는 내면적으로는 결코 일제측에 대해 好意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전술한 것처럼 「만주국」 國務院 軍事部 思想戰 研究部가 작성한 비밀 보고서에서도 질 드러나고 있었듯이, 결국 集家工作을 필두로 한 일제의 각종 치안 공작은, 상술한 것처럼 민중들의 생활을 극도의 곤란 상황으로 몰아가는 등 부정적인 요인들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아이러니컬하게도 치안 기능 그 자체를 점점 취약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진찰기변구, 특히 기열료지구의 팔로군이 1944년을 전후로 오히려 그 세력을 확대시켜 갔다는 사실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진찰기변구, 특히 기열료지구 주민들을 사이에 두고 팔로군측과 拮抗關係에 있던 일제측이, 民衆獲得戰에서 팔로군측에게 점차 主導權을 상실해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